안녕하세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항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고,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때로는 학교,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면 그냥 멍하니 있거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고 싶어져요.

때로는 그런 기분이 들면 해야 할 일에 집중이 잘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때로는 미래에 대해 정말 걱정이 되는데,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게 될 때 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해요. 내가 되고 싶은 누구든 될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집을 떠나고, 친구들과 작별하고,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요.

때로는 피곤해서 그냥 늦잠을 자고 싶어요. 다른 때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지, 제가 실수를 하거나 기대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안부를 묻거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실 때 정말 고마워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고맙습니다.

사랑해요